농림축산식품부 | 보도 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3.(금) 12:00 배포 2026. 11. 13.(금) 10:00

올해 쌀 최종 생산량은 예상 대비 1만 톤 감소

- '26년산 쌀 최종 생산량은 351만 톤(523.6kg/10a)으로 예상 생산량 352만 톤(525kg/10a)보다 1만 톤 감소

11월 13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6년산 쌀 최종 생산량은 350만 8천 톤으로 10월 8일 발표했던 예상 생산량보다 1만 톤 감소(△0.3%)하였다. 올해 생산단수는 523.6kg/10a로 전년(522) 및 평년(521)보다 높은 수준이다.

다만, 올해 처음 도입된 '수급조절용 벼*'의 신청 면적은 11천 ha로, 수급조절용 벼 신청 면적을 고려한 올해 쌀 생산량은 345만 톤** 수준이 된다. 당초 예상 생산량 기준 346만 톤에서 1만 톤 감소한 수치로, 올해 쌀 초과 생산량도 당초 약 7만 톤에서 6만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.

* 평시에 가공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밥쌀 시장에서 사전 격리하는 벼

** '수급조절용 벼'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수치는 달라질 수 있음

쌀 최종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원인으로는 생육 전반에 걸쳐 양호한 기상이었으나, 7~8월 가뭄·고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.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양곡 대여곡 잔여물량 반납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내용의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. 정부는 향후 쌀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펴 필요시 수급안정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.

올해 벼 수확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산지쌀값*은 전년도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.

* 산지쌀값 : (10.5) 58,803원/20kg → (10.15) 57,580→ (10.25) 57,454 → (11.5) 57,403

향후 정부는 벼 매입가 등 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수급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공동>	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김동현 (044-201-1810) 정정희 (044-201-1815)
	식량산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허동웅 (044-201-1831) 홍성욱 (044-201-183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| 대체불가 대한민국 |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